‘P2E 금지 족쇄’ K게임 여전히 안갯속

블록체인 시장 부상에도 ‘침울’

위메이드 ‘위믹스’ 재상폐 결정
넥슨 ‘넥스페이스’ 가치도 반토막
국내 P2E 게임 허용 여론 부정적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침통한 표정이다.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전개한 블록체인 사업 부진의 골이 워낙 깊어서다.

특히, 안방인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하지만 게임업계의 주요 블록체인 사업인 ‘P2E(돈 버는 게임) 게임’은 이용 결과에 따른 일체의 경품과 환전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법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일 게임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재상장폐지를 당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국내 주요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거래소는 지난 2월 해킹 사고로 87.5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하고 이 사실을 4일가량 지나 처음 공지한 것 등을 이유로 재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원 역시 위메이드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는 오는 2일 거래 종료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출금 지원도 끝난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가상자산 ‘넥스페이스’의 가치도 반토막 났다. 넥스페이스는 넥슨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 ‘메이플스토리N’의 기축 가상자산으로, 지난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대표 거래소 업비트, 빗썸에 상장됐다. 하지만, 상장 당일 4352원에 거래됐던 넥스페이스는 1일 업비트 15시 기준 1900원대로 가격이 떨어졌다.

여타 게임업계의 가상자산들도 마찬가지다. 빗썸에 상장된 넷마블의 ‘마브렉스’와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컴투스홀딩스의 ‘엑스플라’의 현재 가치는 50~250원에 불과하다. 네오위즈는 지난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의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게임업계는 국내에서 규제 완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치권도 P2E 게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P2E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유보적이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사행성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후보는 “P2E 모델 가운데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현대백화점 신규 출점 계획 (단위: 억 원)

매장	개점 시기	투자 규모
커넥트현대청주	2025년 6월	180
더현대부산	2027년 상반기	7343
더현대광주	2027년 하반기	1조1678
프리미엄아울렛 경산점(가칭)	2028년	3580
합계		2조2781

자료: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과 더현대 부산 조감도

부산·광주에도 ‘더 현대’ 생긴다 정지선 회장 성공방정식 통할까

‘더현대 서울’ 성공 힘입어
전국에 ‘더현대 DNA’ 이식
지방 확장 통해 경쟁력 강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전국에 ‘더현대 DNA’를 이식한다. 부산과 광주에 각각 ‘더현대 부산’, ‘더현대 광주’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부산과 광주에는 유통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리테일 플랫폼 ‘더현대 2.0’ 모델을 적용한다.

1일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27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에코델타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11만1000㎡(약 3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20만㎡(약 6만평) 규모로, 미래형 복합몰 ‘더현대 부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현대 부산에는 차세대 플랫폼 ‘더현대 2.0’이 첫 적용된다. 더현대 2.0은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 등 전통적인 유통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Big Blur)’ 전략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형 복합몰로 조성된다. 명품·패션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신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울렛 상품, 몰입형 체험공간을 한 데 모아 고객들에게 한 데 복합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은 광주광역시에 내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더현대 광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현대 광주에는 더현대 부산과 마찬가지로 더현대 2.0‘ 모델을 적용된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부산과 더현대 광주를 만드는데 각각 약 7000억원, 약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더현대’는 정 회장의 야심작이다.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트렌디한 쇼핑 공간과 인기 신진 브랜드를 들여와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만들어냈다. 2021년 서울 여의도에 들어선 ‘더현대 서울’은 오픈한 지 2년9개월만에 최단 기간 연매출 1조원 점포가 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국내 백화점 점포 순위 10위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현대백화점의 점포는 총 16개로, 이 중 11개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여기에 이달 말에는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점이 영업을 종료한다. 현대백화점으로선 지방에도 점포를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오는 27일에는 충북 청주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 현대 청주’를 오픈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경북 경산에는 프리미엄아울렛 경산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더현대 서울은 정 회장이 성공시킨 빅 콘텐츠”라면서 “프리미엄과 가성비, 자연과 도시 등을 묶어 새로운 유통 형태를 지방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현대건설發 난기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흔들’

국토부와 공기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이탈 결정
대선후보들 지속 의지 표명에도
조기개항 일정 지연 불가피할 듯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요

규모	666만9000㎡
시설	활주로 하나(3500m×45m) 계류장(74대), 여객 터미널(20만680㎡) 화물 터미널(1만7200㎡)등
정부 목표 개항 시기	2029년 12월
정부 목표 예산	10조5000억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현대건설이 결국 발을 뺐다. 국토교통부와 공사기간과 설계안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했다. 후속 시공사 선정은 물론 전체 사업 일정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항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익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부당한 오명도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은 공사기간 문제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소속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6개월간 기본설계를 수행했으며, 지난 4월 28일 국토부에 제출한 설계안에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보다 24개월 늘어난 108개월로 제안했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방파제 시공 순서 변경에 따른 7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보완을 공식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기본설계도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과 설계 활용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도 사업 지속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사태가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건설이 네 번의 유찰 끝에 마침내 사업자가 정해지려는 순간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됐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난달 28일 부산 유세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 등 다른 참여사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선 앞선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공사기간 조건이 유지되는 한 신규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또한 설계 재검토와 입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지연은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

“장 보기 겁나네” 경기침체 속 뛰는 물가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주요 가공식품 가격은 최근 1년새 적잖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식품 34개 품목 중 24개의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7.1% 올랐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5-1177호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열람

구도 1843호선【 사업명: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25. 5.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⑩총연장 (m)	⑪폭원 (m)
결정	구도	1843호선	-	인천 서구 오류동 일원	16,322㎡	오류 광 2-23	오류 대 3-58	-	614	20

○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26호선) 자동실효 예정에 따라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결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일 ~ 2030.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1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로구역(구도 1843호선) 사업
○ 명칭: 원당대로~검단로(오류동 구도 1843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6,322㎡
○ 규모: L=614m, B=20m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도로구역 결정일
○ 준공예정일: 2030.12.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로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낮에는 버럭 하고, 밤에는 반성하는 엄마들을 위한 비상약

버럭맘 처방전

박윤미 지음 | 252쪽 | 13,000원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육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자꾸 아이에게 화가 날까?
왜 책대로 육아가 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나쁜 엄마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뫼비우스 띠 같은 질문에 명쾌하게 응답합니다!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